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준비(수1:10-11)

설교 고윤설 목사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했다. 이러한 출발점에서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사로 잡혀 있었다. 이것을 여호와께서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와 함께 하겠다"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기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 우리도 비슷한 출발점에 있다. 그러한 우리에게 공동체성경읽기와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다. 말씀을 듣고 전쟁을 준비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자.

1. 양식을 준비하라.

(11절上)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먼저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한다. 광야에 있었을 때는 만나를 내려 주셨기에 양식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셨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경험하게 하셨다. 이런 광야를 스데반 집사는 교회라고 표현했다(행7:38). 이제 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한다. 가나안을 천국의 모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천국이라면 전쟁이 없어야 하는데 가나안은 도착하자마자 전쟁을 해야 하는 곳이기때문에 천국 모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가나안은 천국이 아니라 전쟁과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다. 전쟁이라는 것은 목숨을 건 싸움이다. 그래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터전은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 걸고 살아가야 하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 받은 교회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기에 교회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 걸고 나갈 때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양식을 준비하며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자.

2.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라.

(11절下)"...사할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기 "하라"는 말에 강조점이 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진입을 선언하라는 것이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다. 이 땅은 반드시 점령 될 것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밟으면 이 땅은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그것을 말로 "하라"는 것이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중요하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말씀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운 자로써 그의 혀는 양약과 같다(잠12:8). 그 안에 말씀이 풍성한, 즉,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치료의 요소가 흘러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와 같다, 이 극단적인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곳이 교회다. 우리 교회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비수 꽃는 말이 무성한 곳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치료제가 되어야 한다.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서로 상처를 치료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자.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준비(수1:10-11)

1. 마음 열기 - 올 한 해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이 있다면?
2. 경배와 찬양 - 347장,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 이 주신 땅으로 - 한걸음씩 -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 나를 두렵게 - 하지만
주님을 신뢰 함으로 - 주님을 의지 함으로 -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 큰 소리 외치며 - 나아가네
이산지를 내게 주소 - 서 - 그날에 - 주께서 말씀 - 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 그 땅을 취하리
너 이산지를 취하리 너 -

3. 말씀 나누기 - 먼저 성경 본문과 말씀 요약을 읽으세요.

- (1) 성경 본문과 주일설교를 통해, 특별하게 다가온 말씀이나 은혜 받은 교훈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 (2) 가나안 땅은 스스로 양식을 준비해야 하는 곳입니다. 전쟁을 해야 하는 곳 이기에 죽음을 각오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곳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은 어떤 곳인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3)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함께 말씀을 선언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 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치료의 요소가 있 다고 성경은 말씀 합니다. 교회나 목장, 가정에서 말로 인해 위로와 격려, 치료를 받은 경험을 함께 이야기 해 봅시다.

4. 사역 나누기

- (1) 성령 충만한 목장과 돌봄이 필요한 목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 (2) 우리 목장이 품은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시다.
- (3) "공동체 성경 읽기", "대심방"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